

평화기원 메시지

오늘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열리는 낙산사는 해동화엄의 초조라고 불리는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지은 사찰입니다. 1995년 고 조박초 회장의 발원에 따라 한중일 3개국 불교도들이 황금유대를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시작한 이 대회가 1400여 년 전 의상대사가 창건한 이곳 낙산사에서 열리는 것은 천년의 인연을 오늘에 다시 잇는 것이며, 과거 삼국의 구법승들이 열었던 전법의 황금기를 현재에 재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대회가 열린 이래 14회를 맞는 이 대회는 그동안 자비, 평등, 화합, 공생 등의 불교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3국의 불교도들이 긴밀한 논의를 통해 인류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3국 불교도의 우호 증진에 큰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불교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을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불교문화는 인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문학, 음악, 미술, 공예, 건축 등의 예술적 측면은 물론, 사상과 철학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도덕과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화가 접목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3국의 국민은 물론 모든 불교권 국가의 민속과 풍습, 언어와 놀이, 관념, 대중의 정서와 사회적 통념 등에 불교적 가치가 깃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교와 불교문화가 인류의 정신세계를 형성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체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자 지배적 이념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신평조가 만연한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 세상은 경제적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감인토(堪忍土) 즉, 진정한 사바세계로 변화하였습니다. 약육강식의 무한경쟁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이제 지구촌 곳곳에 가공할 자연재해와 경제적 위기를 반복적으로 출현시키고 인류의 평화와 화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하고 강조해야 할 것이 바로 불교가 이 사회에 전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대립과 투쟁의 파국으로 치닫는 인류에게 자비와 공존을 미덕으로 삼는 불교의 가치만이 평화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느린 가운데 서로 상생하며, 작은 것에 만족하며 검박한 생활을 할 때 인류는 물론 자연도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들은 인류를 향해 이와 같은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구원의 메시지로 전달하여 사회적 가치로 구현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인류와 사회를 바꾸는 진정한 힘은 선한 마음에 있다고 힘주어 말해야 합니다. 혼자 누리기보다 함께 나누는 미덕을 가르치고, 폭력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재화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으며, 선을 이기는 어떤 악도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대 재난을 복구하는데 3국의 불교도들이 한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덕과 같이 이제 사회적 가치로 구현해 가야 합니다. 더불어 큰 자비의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풀고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인간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자연의 파괴가 종식되기를 기도하면서 무한한 욕망대신 무량한 복덕을 증장시켜 가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기원이 성취될 때 이 세상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불국토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번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가 열리는 이곳 낙산사에 가득한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퍼져 인류는 평화롭고, 만 생명은 안락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5(2011)년 11월 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